

■ 폭우 내리는 날, 생계형 배달노동자의 비애

상품 젖을까·쓰러져 다칠까... '노심초사'

중국음식점 배달원 현모씨 배달하다 균형 잃고 와장창 상품 파손돼 변상 비일비재 "비에 젖은 포장지 본 고객 이거 비싼데 하면 가슴 철렁"



오토바이를 탄 노동자가 폭우를 뚫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현모(28)씨는 최근 제주도 도남동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 배달을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졌다. 음식점을 나설 때부터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 먹었지만 시간에 쫓겨 마음이 바빠졌다.

위험이 커 (배달을) 피하고 싶지만, 주문하는 손님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태풍, 폭우 등 열악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핸들을 잡아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비 날씨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더 높아 지지만 늘어난 배달 주문량에 시간

에 쫓기는 일이 많아 때면 배달노동자들은 안전과 시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우·폭설 등 악천후에는 배달 지역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가령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좁아진 경우 업주는 매장과 1.5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배달 주문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단순 '권고'다 보니 업체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배달노동자들의 설명이다.

택배노동자들도 비 오는 날이면 상품이 비에 젖을까, 파손될까 노심초사한다. 4년차 택배노동자 정모(34)씨는 "내가 비에 흠뻑 젖더라도 택배 상자만은 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비 오는 날 택배가 젖어 고객에게 값을 물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어느 하루는 택배 종이 상자가 비에 젖어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적이 있는데 택배 상자를 본 고객이 '이거 80만원 짜리'라며 대뜸 가격부터 말하더라"면서 "다행히 상품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말은 듣는 순간 또 값을 물어내야 할 까봐 덜컥 겁이 났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태풍 등 열악한 기상조건 속에서 배달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서 노동자의 권한은 없다. 만약 비가 왔다고 "배달을 천다"고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노동자들을 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배달대행업체나 음식점들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내가 힘들다고 물량을 줄이면 그만큼 수익도 줄어드는 것이다. 배달노동자 대부분이 생계형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7일 금요일 음 6월 18일 (10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며 남부지역에는 아침까지, 산간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 낮 최고 기온은 28-32℃를 기록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30%
30%	성산 30%	30%
30%	고산 30%	30%
70%	서귀포 30%	30%

해돋이 05:51	달뜨기 21:49
해질미 19:28	달지기 08:54
물때 만조 00:52	간조 07:28
12:41	19:16

주간예보

내일	☀️	호리고 가끔 비	27/33℃
모레	☁️	흐림	27/33℃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경고		높음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국기자

의견 갈리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도교육청, 어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상황에서 >김대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고창근 전 제주외고 교장 >정유훈 대정

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고 전 교장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 국제고와 함께 전국 30개 외고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주외고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입시 위주의 편법 운영이나 관련 특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 전 교장은 "하지만 도교육청

은 이전 여부에만 주안점을 두고 서둘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어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외고의 뿌리는 남겨줘야 한다. 공론화 절차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2022년으로 미뤄두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대성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운영 중인 대정고의 과목수가 113개인 반면 제주외고는 34개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제주외고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늘어난 과목을 감당하기 위해 진행되는 가까운 학교간 협동, 과목 확대에 따른

순환교사 운영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도내 교육 관련 단체에서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도 제주외고를 동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 위치 유지는 공립형 대안학교보다도 낮은 응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형훈 국장은 "해당 조사 결과는 아이들을 무조건 제주시 동지역 고교로 보내려는 학부모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며 "제주외고는 '현재 부지에 제주만의 독특하고 행복한 일반고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이후 진행된 방청객 질의 순서에서 제주외고 학부모는 "저희 아이가 제주외고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에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제주외고 뿐이기 때문"이라며 "제주외고가 동지역으로 이전하면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인구와 자원이 몰려 있는 곳에 학교를 또 하나 짓는게 진정한 의미의 해소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스쿨존 안전·따뜻한 버스정류소 방법은...

도, 국민디자인단 구성해 개선 아이디어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집행을 위해 우수과제 2개에 대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첫 발을 내딛던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전문가,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추진단이다.

올해 과제는 국민디자인과제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된 '스쿨존 안전 통합 솔루션'과 '실내처럼 따뜻하게 버스정류소 방한텐트'.

스쿨존 안전 통합 솔루션 과제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학부모, 교사, 교육청,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도청, 자치경찰단 등의 협업 하에 문제 발견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 300m인 통학로를 500m로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맞춤형 통학로 지정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방통행 지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 발굴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방한텐트 과제는 제주 시청 정류소와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동절기 유난히 추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동거리 등을 모델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과 불편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도는 해당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통해 실행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9월까지 수요자 반응 테스트를 진행한 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더맨 신사정장과 강남한복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넓은 주차장과 가족 모두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품격있고 격조있는 디자인, 장인정신이 묻어나는 강남한복, 더맨양복에 놀라실 것입니다.

8월 12일 OPEN

니가 왜 이제야 왔어~ 기다렸는데~

정장/한복 **최저가** ▶ 양복대여 39,000 / 한복대여 99,000

신사정장전문브랜드 더맨 | 서사라사거리 |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 | 제주시보건소

| 신사정장 전문브랜드 | 더맨 The MAN | 강남한복 | 판매·대여 전문점 |

제주시 오남로 20 064 752 8899